

1. 회의 개요

- 가. 주최: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KOPEC)
- 나. 일시: 2010년 10월 12일 (화) 07:00~09:00
- 다. 장소: 서울, 롯데호텔 36층 피콕스위트룸

2. 주 제: "G20 시대에서 역내 협력과 제도적 변화" (Regional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Architecture in the G20 Era)

3. 초청인사: Dr. Charles Morrison (President, East-West Center, Honolulu, USA)

4. 프로그램

- 사회: 양수길 KOPEC 회장
 - o 07:00 - 07:30 조찬환담
 - o 07:30 - 07:50 발제(Dr. Charles Morrison)
 - o 07:50 - 09:00 질의응답 및 토론
 - o 09:00 - 09:05 폐회

5. 회의 주요 내용

□ 금번 포럼은 APEC 역내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춰, G20 시대 속에서 APEC의 역내 협력의 필요성 강조 및 역내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음.

□ 아시아태평양 지역, 혹은 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은 서로 유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, 이 속에서 통합 및 협력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상호간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함.

□ 아시아는 이제 예전의 개발이 덜 된 지역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세계 경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속에서 그 역할을 높이고 있으며, 실제로 아시아가 차지하는 경제적

역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커지고 있음.

□ APEC 국가들에게는 거의 확실히 드러난 문제들과 그렇지 않은 불확실한 과제가 주어져 있음.

- 확실한 APEC의 문제로는 이전과는 달리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, 아시아의 인구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, 자원 부족과 환경 보존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, 보건에 대한 문제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음.
- 반면 불확실한 APEC의 문제로는 아시아 지역도 이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발전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의 여부, 역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, 정치적 진화에의 대처 방안, 국제 관계 문제, 글로벌 이슈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의 APEC의 역할을 들 수 있음.

□ 먼저, 글로벌 경제에서 아시아의 부상에 대해 예를 들기 위해 총세계생산량 대비 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을 살펴볼 수 있음.

- 1970년에는 총세계생산량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%에 불과했지만, 2006년 현재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%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음.
- 세계은행이 제시한 고용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아도, 1985년 한국의 고용률은 약 35%에 불과했지만 2007년 금융위기 발생 전에는 거의 95%에 달하는 수준을 보이는 등 엄청난 성장을 하였음.
- 태국의 경우에도 1985년에는 20%를 밑도는 수준이었지만 2007년에는 50%에 달했음.
- 이는 세계 경제 성장 및 고용 촉진에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.

□ 역내 경제 협력의 수준을 살펴보면, 유럽에는 EU가, 미주 지역에는 NAFTA가 존재하는 데, FTA를 비롯한 이 회원국 간의 역내 경제 통합 건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, 1955년에는 EU와 NAFTA에 비해 현저히 뒤쳐졌던 APEC 지역의 역내 경제 통합 건수가 2005년에는 크게 성장하였음.

- 1955년 EU는 46건, NAFTA는 39건, 아시아는 23건이었지만, 2005년에는

EU가 66건, NAFTA가 43건, 반면 아시아는 53건으로 아시아가 NAFTA의 역내 경제 통합 건수를 넘어섰음.

- 이것은 아태지역이 과거보다는 이제 지역 경제 통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 지역경제 통합의 목표가 될 것임.

□ 또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전에는 지역 경제 통합을 맺는 주목적이 경제 통합을 위한 인구의 이동이었으나, 위기 이후에는 FDI, 금융 거래, 거시경제 문제 등 실제 경제적인 문제로 변화하였음.

□ 아태지역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,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 기인함.

- 중국이 출산을 통제한 이후부터 아시아 지역의 전체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, 인구 피라미드로는 정삼각형의 노인이 적고 유아가 많은 형태에서 점차 변화하여 2050년에는 노인이 많고 유아가 적은 역삼각형의 형태를 갖게 될 것임.

□ GDP의 변화를 보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이 불균형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, 일본 도쿄의 GDP가 한국이나 캐나다 등 역내 다른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내는 GDP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.

-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2008년 GDP는 1,479불인데 이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나 역내 또 다른 대도시인 홍콩과 비교했을 때는 약 4~5배에 달하는 크기임.
- 이를 통해 그 동안 아태지역의 개발 및 경제 성장이 얼마나 불균형적인가를 알 수 있으며, 아태지역은 이제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경제 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임.

□ 아태지역이 받는 자원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아태지역은 최근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성장의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며 그만큼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임.

- 따라서 지금과 같은 개발 속도가 지속된다면, 아태지역은 석유 등 천연자원의 부족을 가장 심하게 겪게 될 것이며, 특히 아태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.

- 중국과 인도는 세계 인구의 약 20%와 17%를 차지하고 있으나, 이와 반대로 이들이 차지하는 석탄 보유량은 약 12%, 1.3%, 천연가스 보유량은 1.3% 등 그들의 소비에 훨씬 못 미치는 양임.
- 이는 전 세계적인 자원의 압박이 있을 것을 의미하며,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자원에 대한 균형잡힌 소비가 요구됨.

□ 보건과 관련해서, 과거 인류를 위협했던 전형적인 질병으로 인한 위험 정도는 많이 감소했지만, 이제는 인류의 수명이 연장되고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유발된 질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.

- 새로운 전염병도 유행하고 있는데, 이들은 주로 동물 등 다른 원인에 의해 감염되고 있음. 예를 들어 2004년 조류독감, 2003년 사스 등이 그것임.
- 또한 한국의 경우 자살률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, 이는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을 겪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라 할 수 있음.

□ 반면 아태지역이 안고 있는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 말해 보자면,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경제 모델과 자원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, 사회 불평등 및 정치적 다이내믹스를 비롯한 국내적 진화, 국제 관계, 글로벌 리더십이 그것임.

- 예를 들어 중국의 지니계수와 탄소 배출량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, 이는 중국이 더 이상 글로벌 환경 및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에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줌.
-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미국과 중국 중 세계 환경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국가는 과반수가 중국을 꼽았음.

□ 역내 거버넌스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, 아시아의 정치 시스템은 현재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- 필리핀, 동티모르, 피지, 방글라데시에서는 아직도 정치적 갈등이 매우 심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, 한국과 대만은 이 정치적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, 일본, 태국, 네팔은 리더십의 변화가 잦음. 마지막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과 버마는 아직 그

러하지 못함. 이처럼 아태지역의 정치 체제는 아직까지는 불안정함.

□ 아태지역에게는 아직까지 몇몇 지정학적인 문제가 남았는데 태평양-대서양 간의 인종 및 민족주의, 한반도의 갈등 문제, 권력의 이동 문제, alliance와 다자간 기구를 포함한 역내 구조의 문제 등이 그것임.

□ 아태지역의 변화하는 트렌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; 먼저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전문화된 연구 및 교육의 필요, 둘째 중요한 이슈나 시사점에 대해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확대, 셋째 필수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한 개혁 및 감시 필요, 넷째 리더십 및 리더십 스킬에 대한 신중한 요구 등을 들 수 있음.

□ APEC은 더욱 역내 통합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, 아태지역은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며 충분히 영향력 있음. 따라서 역내 회원국들은 모두 다른 회원국들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예측함으로써 상호 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해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역내 통합 및 협력을 강화하여야 하겠음. 이는 회원국들의 정치적,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임.